

남남북녀의 애뜻하고 기이한 사랑 이야기

북한으로 밀입국한 남쪽남자와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 탈북한 북쪽여자의 긴 여정

우리가 일찍이 상상해보지 못했던 이 시대 최고의 남남북녀 로맨스가 펼쳐진다.

이병천 작가가 5년만에 장편소설 '북쪽여자'를 발간했다.

익숙한 듯 낯설고, 애뜻하면서도 불편한, 기이한 사랑이야기인 '북쪽여자'는 사랑을 구하기 위해 북한으로 밀입국한 남쪽 남자와 남쪽 남자를 만나기 위해 탈북한 북쪽 여자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줄거리는 이렇다.

2008년 7월, 당시 활발하게 추진되던 금강산 관광사업의 안내자였던 남쪽의 남자 백산사와 북쪽의 여자 립채하는 금강산의 구룡연코스를 안내하며 서로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이후 몇 번의 관광일정이 이어지는 동안 젊은 남녀는 급속도로 가까워지

고 마침내 서로 마음과 몸을 나누게 된다.

길지 않은 40일 동안 금강산 구룡폭포의 '선녀와 나무꾼'이 된 듯, 전상의 견우와 직녀'가 된 듯 시간을 보내던 어느 새벽, 갑작스런 총격사건으로 관광객 한 명이 죽는 일이 발생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은 갑작스레 중단되고 만다.

그로 인해 작별인사도 없이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된 두 사람은 2011년 8월 마침내 두만강을 건너고야 만다. 백산사는 립채하는를 찾기 위해 북으로 립채하는는 백산사를 만나기 위해 남으로 목숨을 건 긴 여정을 시작한다.

하지만 남한의 정권이 바뀌고 급속도로 얼어붙어가는 남북관계와 정치계의 검은 음모에 휘말려 둘의 사랑과 운명은 점점 위험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안도현 시인은 이 책을 읽고 "소설 속

의 사랑은 절박하고 책을 읽은 후의 느낌은 절통했다"며 "백산사와 립채하는의 사랑은 우리가 일찍이 상상해보지 못했을 정도로 독특하면서도 서러웠다"고 평했다.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진모영 영화감독 역시 "장면들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소설을 읽으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아 옮겨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이병천은 전주에서 태어나 전북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8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우리의 숲에 놓인 몇 개의 멧에 관한 확인'이, 198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소설 '더듬이의 혼'이 당선돼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고은지 기자



이병천 정편소설 <북쪽여자>

복지시설 방문공연 릴레이

전북도립국악원 원주·장수에 이어 8회 진행

전북도립국악원이 지난 2일 원주 국제재활원과 장수 훈훈한동네 공연을 시작으로 2016년 복지시설 방문공연의 문을 열었다.

'꽃보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행복한 예술나눔'을 주제로 올해 총14회 복지시설 방문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국악원은 2월 한달간 원주와 장수에 이어 익산과 남원, 정읍, 부안, 진안, 무주 등 복지시설을 찾아 8회의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시설 방문공연은 전통예술의 다양한 공연무대를 작품해설과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연은 국악중주·창작무용·가야금병창·진도북춤·민요·타악 등 공연장 상황에 맞춰 전통을 중심으로 순서형태로 꾸며지며 민요배우기 등 관객 참여형 공연을 더해 복지시설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이 우리 국악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립국악원 과승기 원장은 "복지시설 방문공연은 문화사각지대의 도민들에게 전통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국악파니아를 확보함으로써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복지시설 방문 공연의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레퍼토리를 다양화하는 등 공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은지 기자



'감성밴드 음담악설' 전주에

11일 한옥마을 공연... 25일 소리꾼 방수미 무대

2월 공간봄 목요초청공연으로 꽃미남 밴드 '감성밴드 음담악설'과 마음을 울리는 소리꾼 '방수미'가 전주를 찾는다.

'음담악설'과 '방수미' 공연이 오는 11일과 25일 저녁 8시 한옥마을 공간봄에서 개최된다.

'음담으로 이야기하고 악기로 말한다'는 음담악설은 3명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지금 소속된 연습공간이 구성되기까지 전주역의 후미진 응달 초등학교 운동장 구석 낡은 벤치에서 도망치듯 합주를 하던 음담악설.

특히 보컬 박형용 군의 음색은 소년과 청년을 넘나드는 건 강하고 깨끗한 느낌으로 소녀패를 몰고 다닌다는 후문. 더불어 건반과 퍼커션의 2대의 악기는 무대장악력에 가치 정점을 찍는다.

11일 자칭 버스킹의 황제, 꽃미남 밴드 '음담악설'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25일에는 창작곡에 녹아든 판소리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귀명창들을 위한 시간이 마련됐다.

춘향이 역을 맡으면 청초한 춘향이 되고 별주부전의 토끼 역할을 맡으면 익살스러운 토끼로 변하는 기상천외한 소리꾼 '방수미'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

요즘 가장 핫한 소리꾼 방수미 명창은 초등학교 2학년때 판소리를 시작한 후 국악원 단원으로 작품 출연은 물론이고 국악방송 진행자, 서울의 국립국악원 작품 출연 등 실재성이 활약하고 있다.

오는 25일 공간봄에서 방수미 명창은 매창, 진채신, 정음사 등 지역을 기반으로 제작됐던 오페라와 칸타타의 창작곡을 선사할 예정이다.

/고은지 기자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이렇게 달라진다

'영화의 거리'에서만 진행
개·폐막식 옥도 주차장에서
10일 영화제 시스템으로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에서 대체로운 프로그램 및 영화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지난해 종합경기장과 CGV효자를 이용해 공간의 확장을 꾀한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는 고사동 '영화의 거리' 한 곳으로 집중된다.

전주국제영화제 이흥직 집행위원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주요 계획 및 변동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가장 먼저 영화제 모든 영화의 상영과 이벤트,마켓은 고사동 객사 '영화의 거리'에서만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개·폐막식 및 야외상영작이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것과 달리 올해는 개·폐막식 및 야외상영작은 전주시네마타운 뒷 건물 옥도주차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옥도주차장은 약 3,000여평 규모로 사무처는 1만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사무처는 옥도주차장 약 2,000여평은 야외상영장으로 꾸미고 3,000석의 의자를 놓는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1,000여평은 공연 및 야외 이벤트 자리로 꾸며진다.

더불어 메인상영관은 롯데시네마와 함께 새롭게 개관한 객사CGV로 영두하

고 있다.

기존 영화제 일정 시스템도 변동됐다.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기존 7+3 일정을 과감히 탈피, 10일 영화제 시스템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화제는 7일 동안 계획된 프로그램과 시상식을, 나머지 3일 동안은 화제작을 상영하는 7+3일 시스템으로 영화제를 운영했다.

하지만 개막식으로 시작돼 고조되다가 폐막식 후 나머지 2일이 영화제의 열기를 식힐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사무처는 다시 '10일' 영화제를 택했다. 이에 따라 마지막날인 10일째 옥도주차장에서 폐막식이 진행된다.

한편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에서 대체로운 프로그램 및 영화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고은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KBS 국악한마당

27일 군산서 개최

김무길 명인 거문고 산조로 시작
왕기철 · 기석 명창 창극 등 다채

KBS 국악한마당이 오는 27일 오후 3시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KBS 국악한마당은 전국 지상파 유일 국악프로그램으로 명인 명창과 젊은 국악인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김무길 명인의 묵직한 거문고 산조를 시작으로 왕기철, 왕기석 명창의 부녀들과 함께 꾸미는 유쾌한 창극, 중요무형문화재 제호 판소리그림 예능보유자 김청만 명고와 이끄는 일통고법보존회의 소리복합주와 판소리로 명품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군산 출신의 국악인 김규희 명창을 필두로 소담소피아트의 신명나는 민요가 락과 2IC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에 빛나는 버리국악단의 세련된 우리음악과 전주에 살고있는 학생들의 칼군무까지 다양한 국악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국악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으며 다양한 국악 장르로 관객에게 친숙하게 다가와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신명나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KBS 국악한마당은 전설 무류이며 지난 1일부터 금강방송을 통해 인터넷 사전예매가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 (<http://arts.gunsan.go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문정문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ilab.com/>

<2016년 2월 4일>

▷쥐띠

49년생: 임시 박탈은 있었으나 전체적인 운은 좋은 편
80년생: 다른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중심을 잡아라.
72년생: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나 외부적인 일은 잘 풀리는 운
84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신속히 진행하라

▷용띠

52년생: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때.
86년생: 자존심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
79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자주 막히는 때이니 때를 기다려야 내일을 다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88년생: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운. 시비수도 따른다.

▷원숭이띠

56년생: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보라
8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천운이 따르니 쉽게 풀린다
80년생: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운. 신체에 무리가 가는 일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92년생: 놀랄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니 원행은 삼가야

▷소띠

49년생: 지금은 앞으로 나갈 때가 아닌 물러날 때
61년생: 자신이 부지런 만큼 풀리는 운이니 욕심은 금
73년생: 자신의 고집으로 내세우면 고립될 것이다.
85년생: 흔들리는 모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감을 떨어지게 만든다

▷뱀띠

53년생: 같은 화려한 듯 하니 내부는 험하니 내실을 다질 것
66년생: 외부적으로 손재주가 따르니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한 운
77년생: 자신보다 강한 상대로 인해 스트레스가 예상
89년생: 일이 막히고 힘을 때에는 뒷사람의 조언을 구해야

▷닭띠

57년생: 사람으로 인해 실망할 일이 생기니 주의하라.
69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할 것.
81년생: 속에 담아두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불순하게 행동하니 말로 풀고 진행하라.
93년생: 아작은 때가 아니니 좀 더 계획을 세워라

▷호랑이띠

50년생: 외부적인 일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운이다.
62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마음을 다스릴 것
74년생: 인적이 있거나 사람으로 인해 기쁜 일이 있는 운이다. 회합하기에
86년생: 경장지로 인해 힘든 운이다.

▷말띠

54년생: 말쑥한 사람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낄만한 일이 발생
66년생: 타인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운이니 혼자 진행하는게 좋다
78년생: 새로운 사람보다는 기존의 사람에게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운이다.
90년생: 언행에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니 주의하라

▷개띠

46년생: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라.
58년생: 외부적인 일운이 득이 많으나 내부적인 일은 좋지 못하니 신경 써야 하는 운이다.
70년생:이렇사들에게 신경 써야 하는 때이다.
82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매사에 주의가 필요하다

▷토끼띠

51년생: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먼저 나서서 수습하라.
63년생: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라.
75년생: 그동안 해왔던 일을 고수하는 것이 좋다.
87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양띠

55년생: 매사에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때.
67년생: 주변에서 자신을 간섭하거나 답답하게 하는 상황
79년생: 나서지 않는 것이 좋은 운이다. 좋은 일하고 구설에 휘말리니 주의하라.
91년생: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만 진행하라.

▷돼지띠

47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고 오히려 손해만 가져온다
59년생: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거리를 두어
71년생: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후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83년생: 한만큼 풀이오는 운이다.